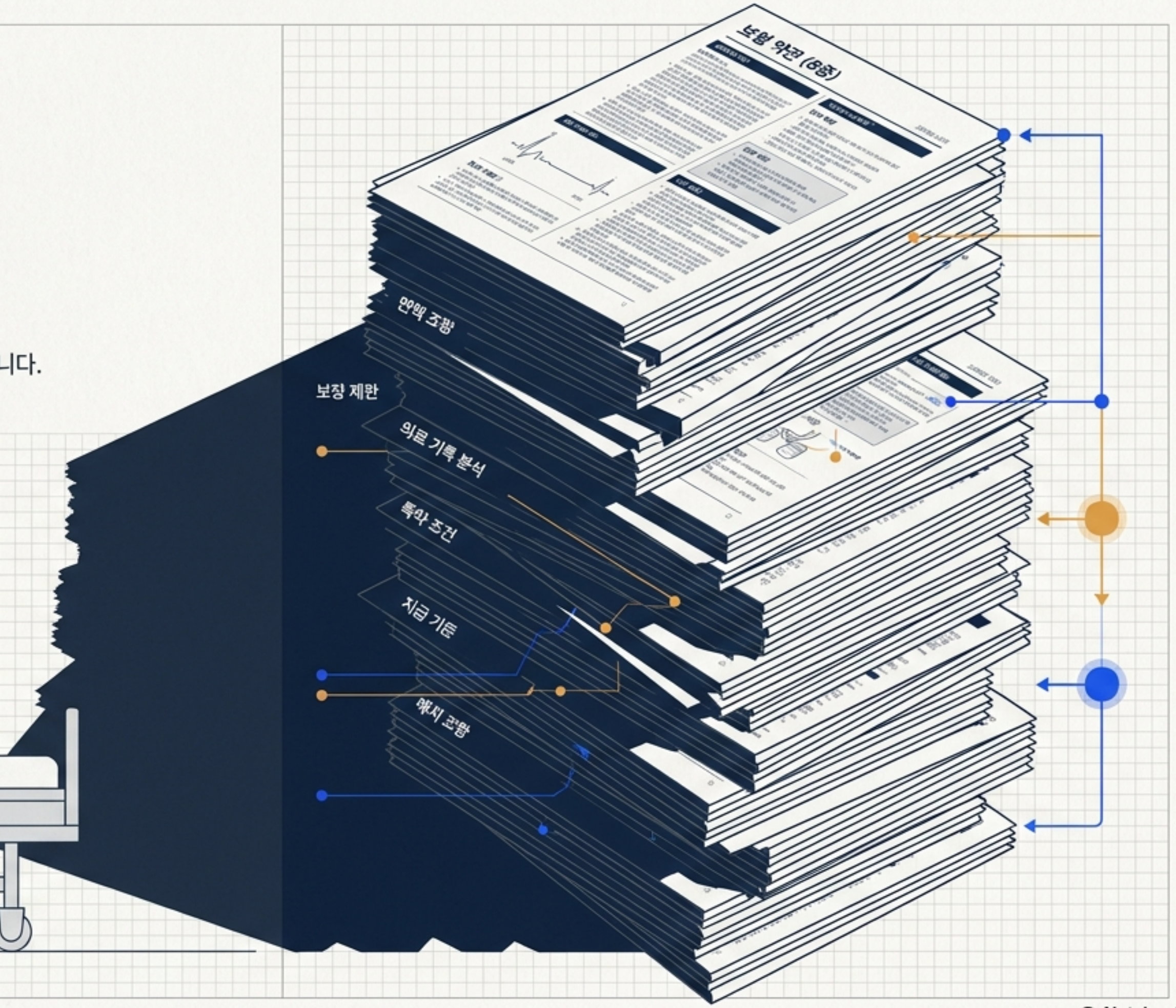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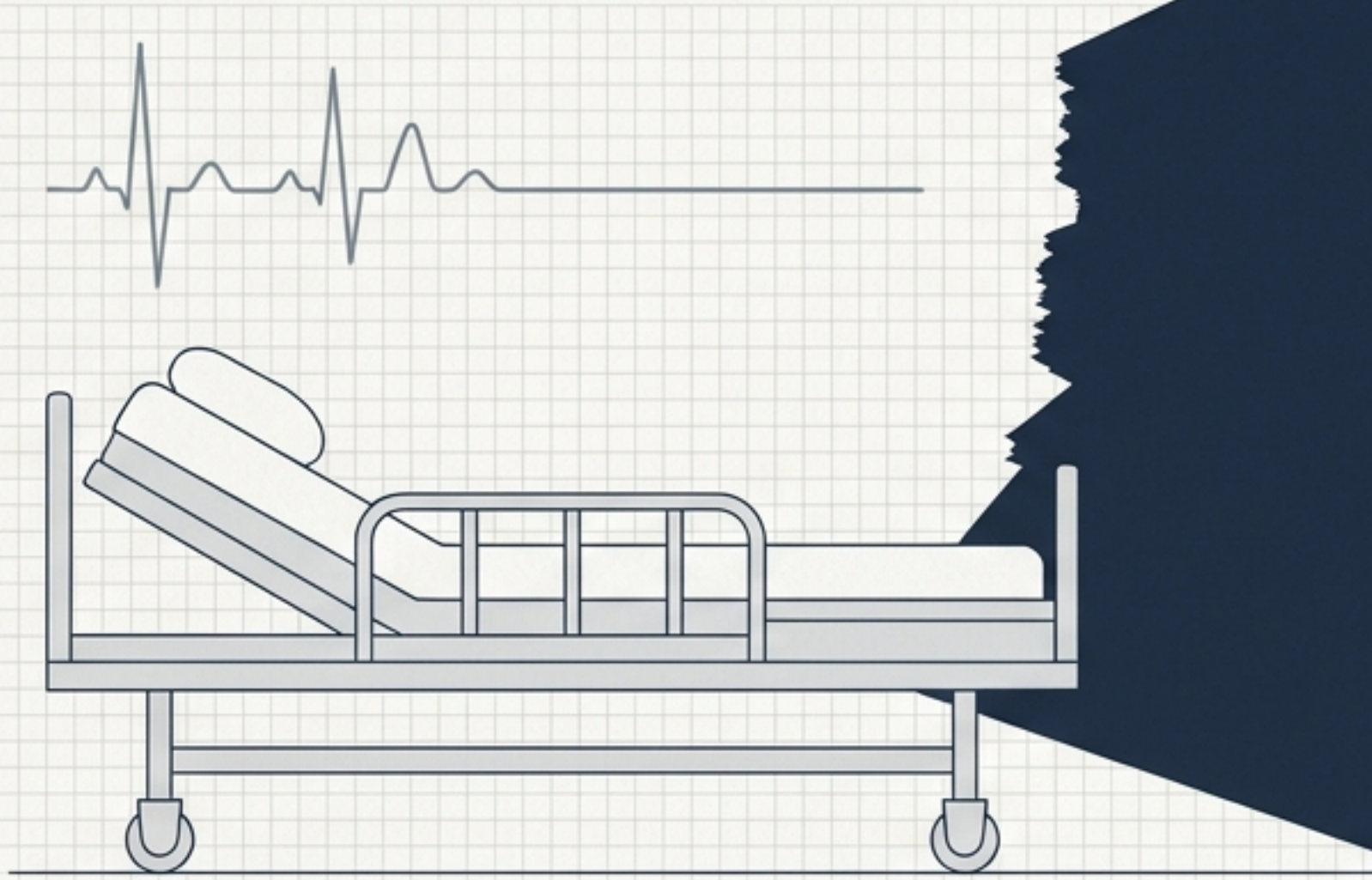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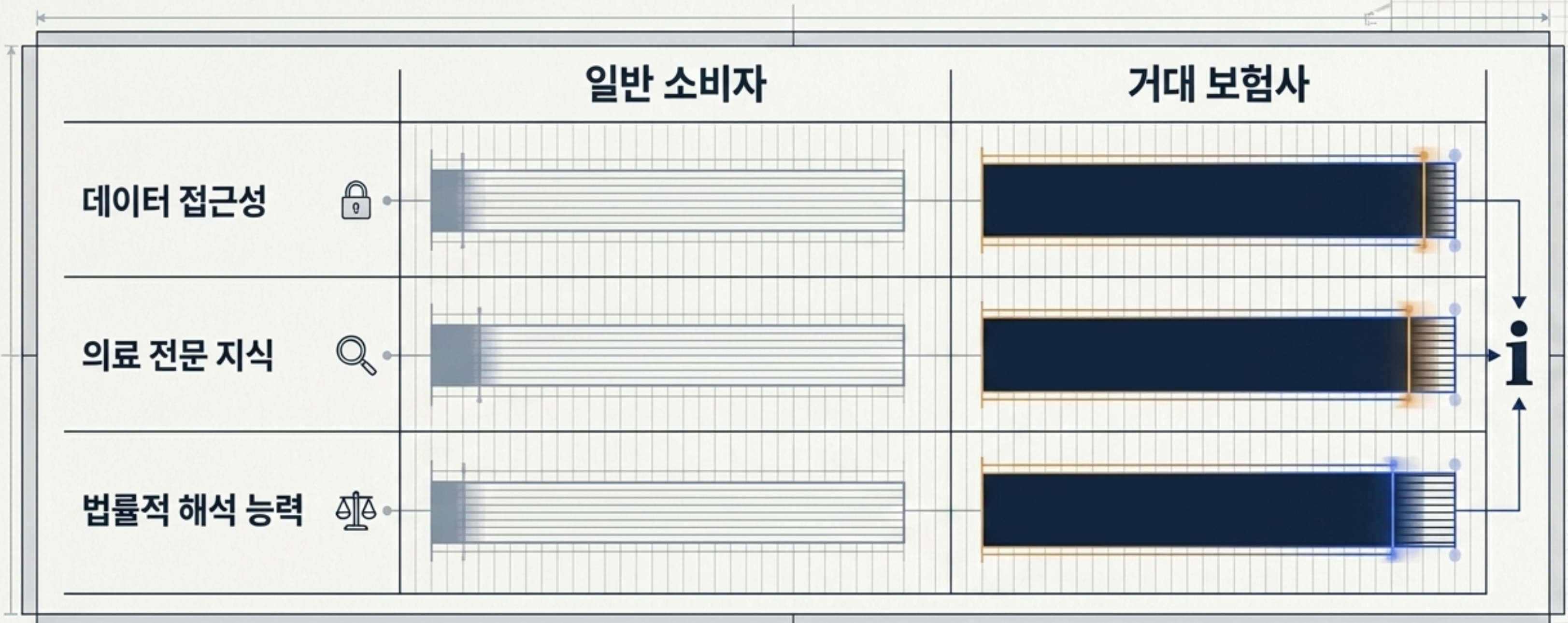
# 절망의 벽: 8개의 약관과 암호화된 진료 기록

아버지의 담낭 질환 입원 중 발생한 갑작스러운 뇌경색.  
가입된 보험으로는 보상이 어렵다는 주변의 우려 속에,  
청구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대한 현실의 장벽에 직면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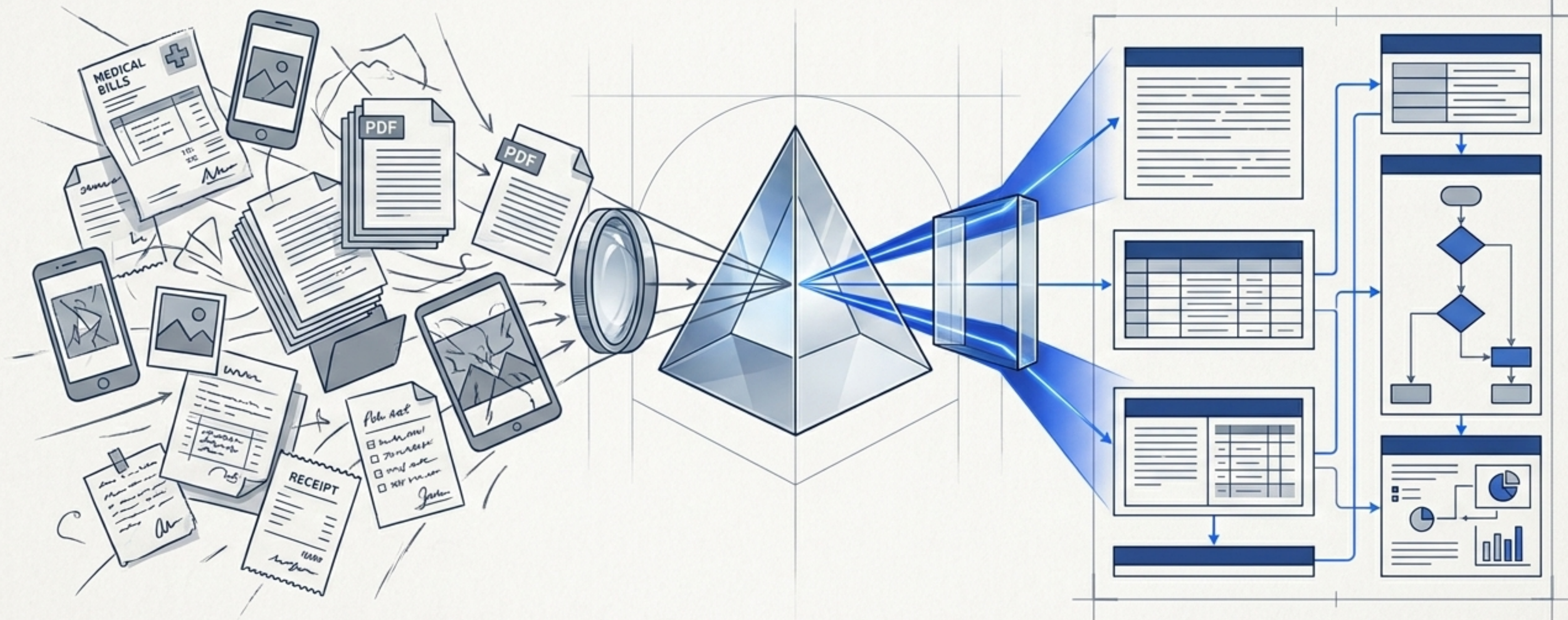
# 기울어진 운동장: 정보 비대칭의 현실

의료비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겪는 본질적인 한계는 질병의 고통이 아닌 정보의 격차에서 비롯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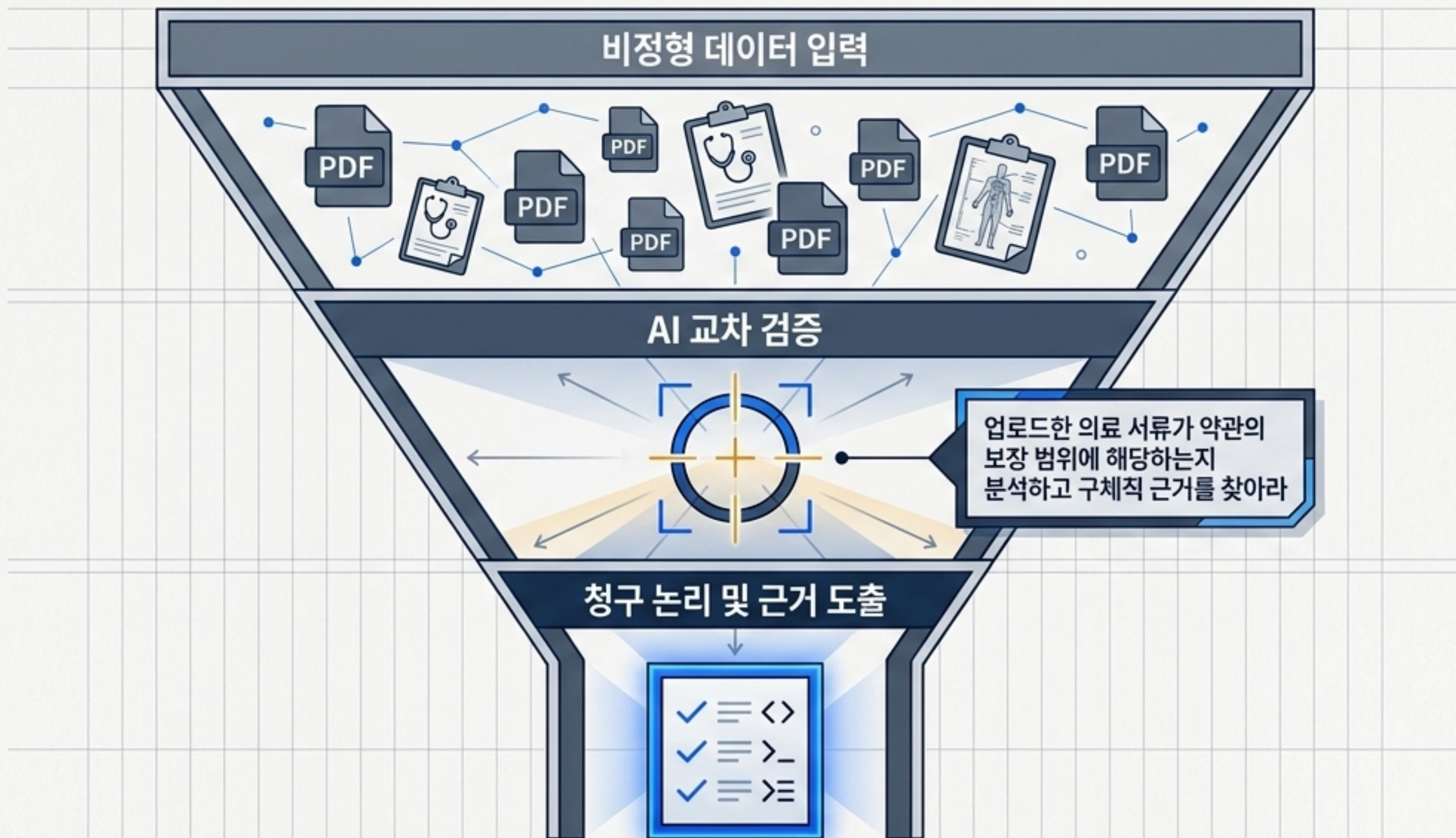
# 균형추의 등장: 멀티모달 AI 'Gemini'

방대한 텍스트 약관과 비정형 이미지 데이터를 동시에 해독하고 교차 검증하여 진실을 추출해 내는 도구



# 데이터 정제 깔때기: 혼돈에서 논리로

8건의 방대한 보험 약관과 난해한 의료 전문 용어 사이에서 정확한 청구 항목을 도출해 낸 분석 프로세스입니다.



# 해독된 청구서: 숨겨진 '미세 증거'의 발견

AI는 단순한 병명이 아닌, 보험사의 약관과 정확히 맞물리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.

**진료비 세부내역서**

뢰원명: [REDACTED]      참도: [REDACTED]  
 자사인명: [REDACTED]      납지: [REDACTED]

진료비종역	진료비종역	환자부담종역	진료비종역	환자부담종역	
진료비종역		환자부담종역			
진료비종역		전자			
자료기간	2020.11. [REDACTED] 14만	정적장양			
환자부담종역		...			
항목	코드	약제명	과드	청어	진자총액
약제명	S2541	엑티라제	3	32,900	28,900
	S2541	엑티라제	1	1,900	2,900
	S2541	엑티라제	3	11,200	12,900
	S2541	엑티라제	1	1,900	1,900
	S2541	최침신약제	1	900	1,900
	S2541	엑티라제	1	800	900
재료대	A6503	[COOK, Winn]	1	19,500	13,500
	A5503	[COOK, Winn] 침윤대	1	1,550	1,500
	K5503	단순루메즈) 채공대	1	1,300	1,500
	R6503	단순루마강 재료)	1	1,700	1,7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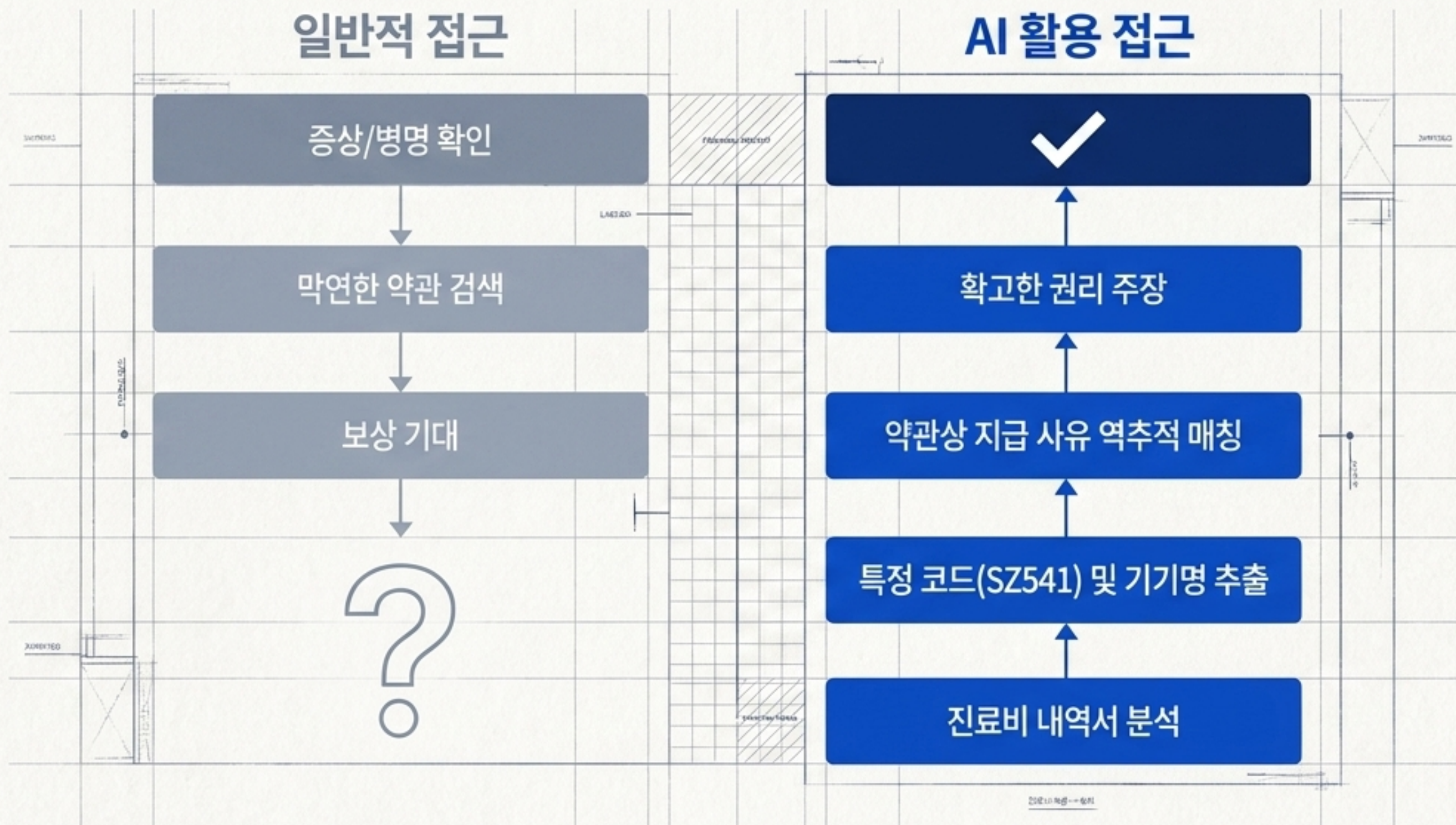
**[SZ541]**  
 국가 공인 시술 코드  
 (약관상 '혈전제거술 급여금' 지급 조건 매칭)

**[엑티라제]**  
 혈전용해치료비 보상을 위한 핵심 약제명

**[COOK, Winn]**  
 단순 투약이 아닌 '기계적 시술'임을  
 완벽하게 증명하는 의료 기기 브랜드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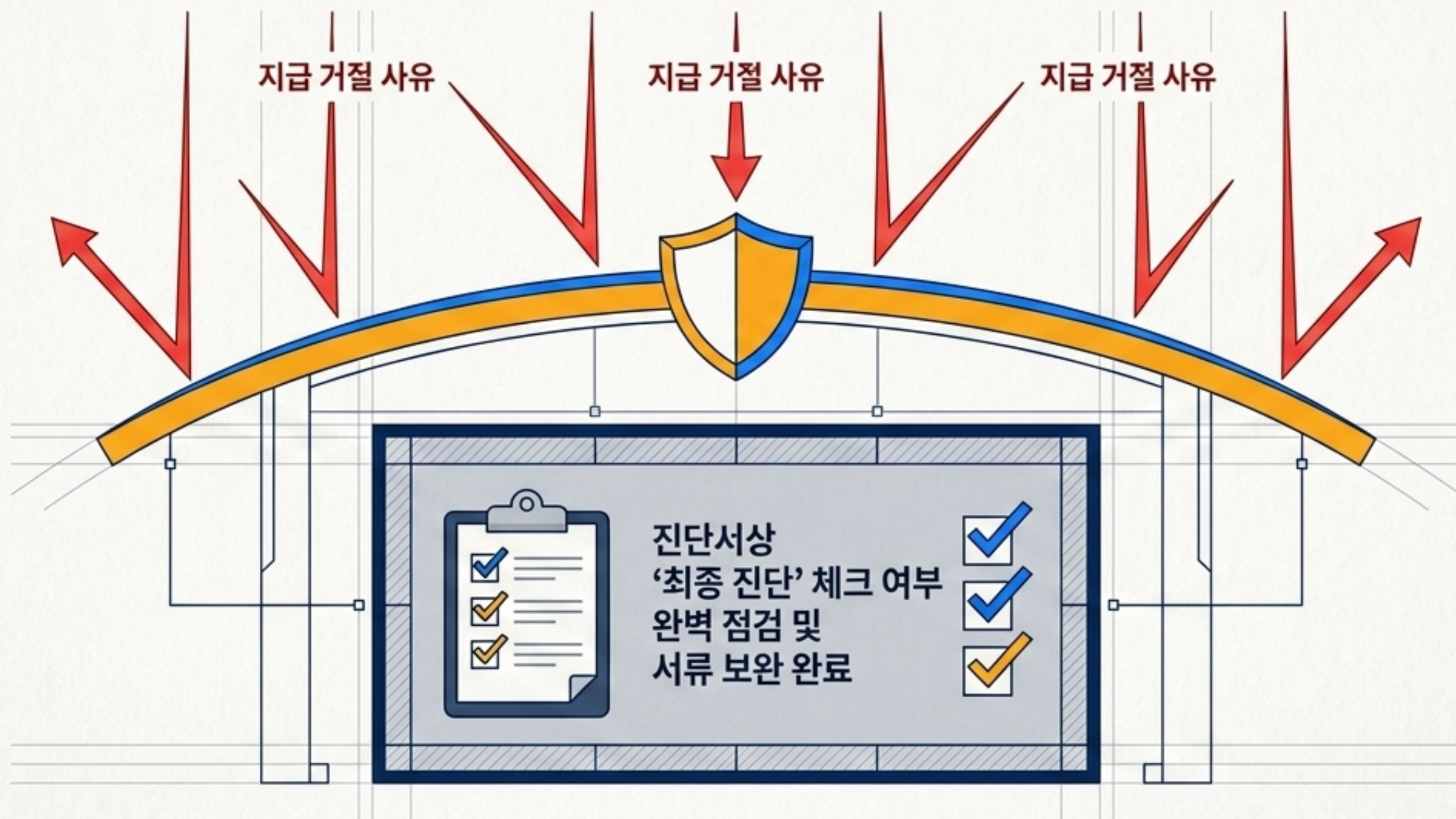
# 패러다임 시프트: 역방향 추적 방식 (Reverse-Engineering Claim)

단순히 무슨 병인가요?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. 진료비 내역서상의 청구 코드를 먼저 찾아내어 약관에 대입하는 역방향 논리를 적용했습니다.



# 사전 방어 논리: 거절의 틈을 원천 봉쇄하다

AI에게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경우 반박할 논리는 무엇인가?라고 미리 질문하여, 서류의 완결성을 사전에 확보했습니다.




# 총 1,300만 원 이상 전액 수령


## 일주일 만의 증명: 1,300만 원의 정당한 권리

보상이 안 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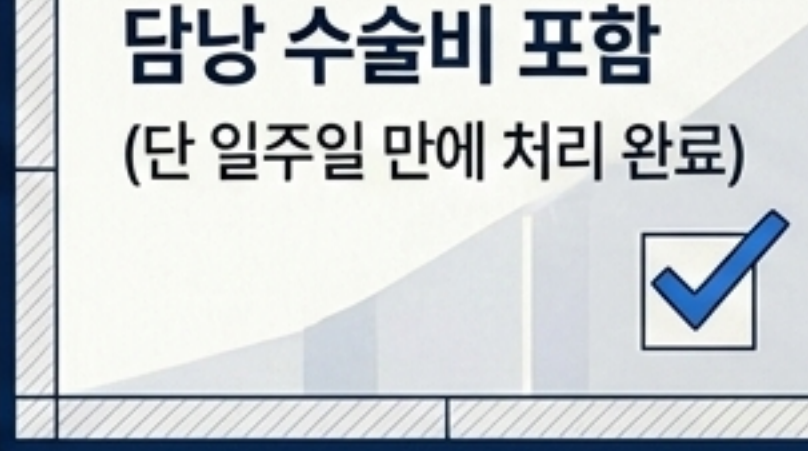
뇌졸중 진단비:  
300만 원



혈전제거술 급여금:  
1,000만 원



담낭 수술비 포함  
(단 일주일 만에 처리 완료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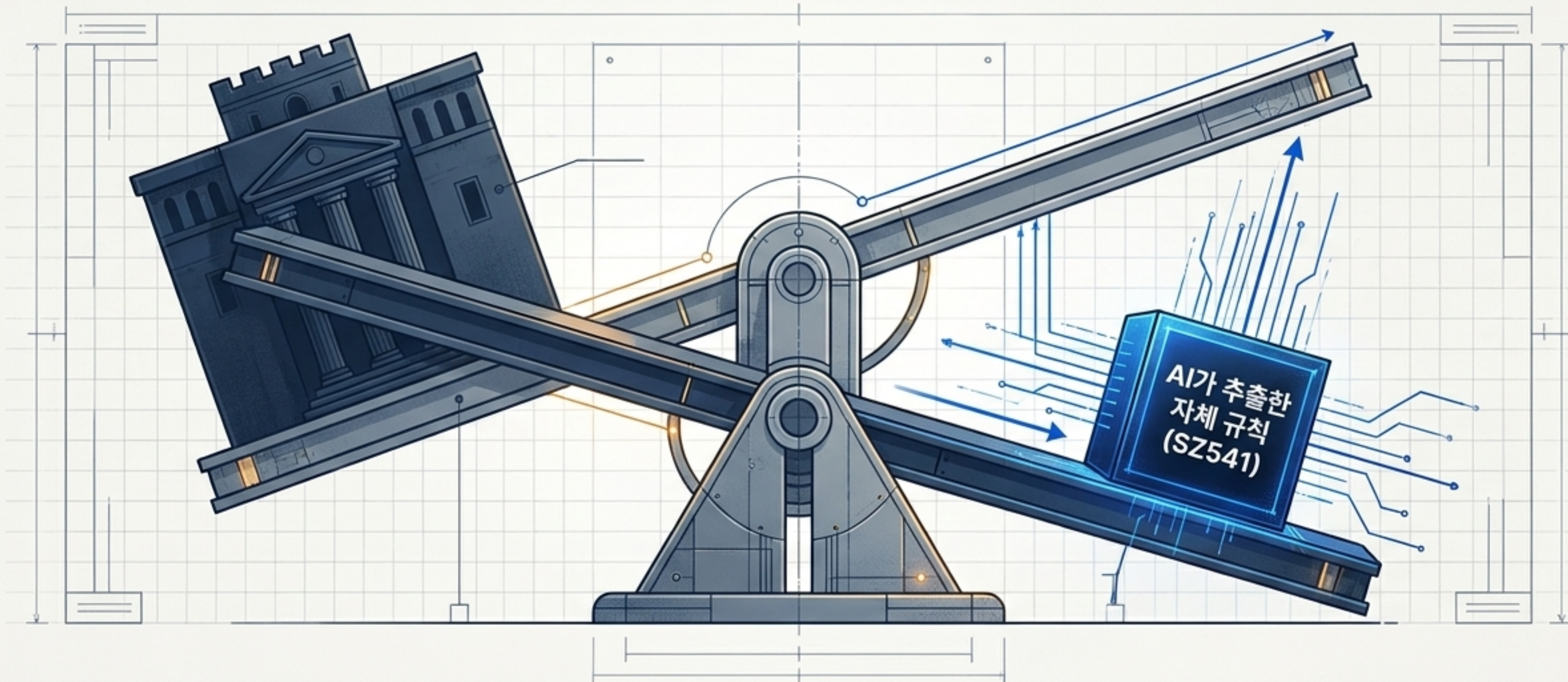
# 가치 비교: 전통적 방식 vs. AI 권리 청구

AI는 단순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을 넘어, 청구의 전략과 심리적 상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.

	전통적 방식	AI 권리 청구
소요 시간	수주~수개월	단 1주일
비용	손해사정사 고용 수수료 발생	무료
심리 상태	불안과 의심	데이터에 기반한 확신
청구 전략	서류 제출 후 선처 대기	확고한 코드를 무기로 한 권리 요구

# 입증 책임의 전환: AI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

AI의 진정한 가치는 문서를 빠르게 읽는 데 있지 않습니다. 소비자가 아픔을 증명하며 읊소해야 했던 과거에서 벗어나, 기관의 자체 코드(SZ541)를 무기로 기관이 자신의 규칙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**'권리의 주도권'** 을 가져온 것입니다.



# 누구나 가능한 권리 구출 3단계 (Replicability Engine)

전문가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, 집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당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AI 활용법입니다.



# 기술이 되찾아준 가족의 평안

복잡하고 차가운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AI는 아버님의 건강과 가족의 경제적 권리라는 가장 따뜻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.  
이것은 정보 격차의 벽을 허물고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대의 청사진입니다.

